

호남에 분 민주당 바람, 광주는 '태풍' 전남은 '약풍'

(弱)

전남 22곳 중 '8곳' 무소속·평화당
덧발 전남서 '묻지 마 투표' 없었다
막판 네거티브 전략 부작용 평가도

“광주는 이번이 없었지만 전남은 야권의 선전세가 두드러졌다.”

6·13 지방선거 결과 광주는 시장과 5개 구청장 모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몰표로 압도했다. 전남은 22개 지역 중 8곳(36.4%)에서 야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앞서면서 여당이 예상 밖으로 고전했다. 광주에서는 광역, 기초의회도 민주당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향후 지역 정치 재편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광주 서구갑과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 2곳은 민주당이 싹쓸이해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수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민주당은 80%를 웃도는 압도적 고공 지지율을 바탕으로 광주시장과 구청장 5곳을 싹쓸이했다.

민주당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 득표율은 84.07%에 달해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 지었다.

광주 5개 구청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5명의 후보가 53~7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동구청장은 임택 후보가 53.92%, 서구청장과 남구청장은 서대석 후보와 김병내 후보가 66.61%와 68.85%를 득표했다.

북구는 문인 후보가 77.21%로 5개 구청장 중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고 광산구는 김삼호 후보 75.82%로 야권과 무소속 후보를 여유있게 제쳤다.

광주시의원 23명, 5개 자치구의원 68명도 민주당이 거의 독식하다시피 해 광주 지방의회 일당 독주현상이 재현됐다.

국회의원 재선거구인 광주 서구갑은 민주당 송갑석 후보가 차지했다.

지역 정치 관계자는 “민주당이 공천과 경선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모습으로 실망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 유권자들은 그것에 주목하기보다는 문재인 정

김영록 전남지사



부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로 보여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전남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민주당평화당 등 이른바 비민주당 후보들이 비교적 선전했다.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긴 했으나 압승을 예상한 당의 기대에는 못 미치면서 ‘황금분할’이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남지사에는 김영록 후보,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에는 서삼석 후보가 당선돼 민주당 몫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그러나 22개 시·군 기초단체장 상당수를 무소속·민주당평화당 후보들에게 내줬다.

민주당은 14곳에서, 무소속은 5곳에서, 민주당평화당은 3곳에서 단체장 직함을 달았다.

민주당 소속 당선자는 김종식(목포), 허석(순천), 강인규(나주), 최형식(담양), 유근기(곡성), 김순호(구례), 김철우(보성), 구중곤(화순), 이승욱(강진), 신우철(완도), 이동진(진도), 전동평(영암), 김산(무안), 김준성(영광) 등이다.

무소속 가운데는 권오봉(여수), 정현복(광양), 유두석(장성), 정종순(장흥), 박우량(신안) 후보가 여당과 다른 경쟁자를 물리쳤다.

평화당에서는 송귀근(고흥), 명현관(해

이용섭 광주시장



남), 이운행(함평) 후보가 당선됐다.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었던 목표의 경우 평화당 박홍렬 후보와 옆치락뒤치락 끝에 민주당 김종식 후보가 150표차로 힘겹게 이겼다.

하지만 전남 5개 시 단위 지역 가운데 여수·광양 등 동부지역 주요 거점 도시에서 단체장을 내준 것은 민주당으로서 뼈아픈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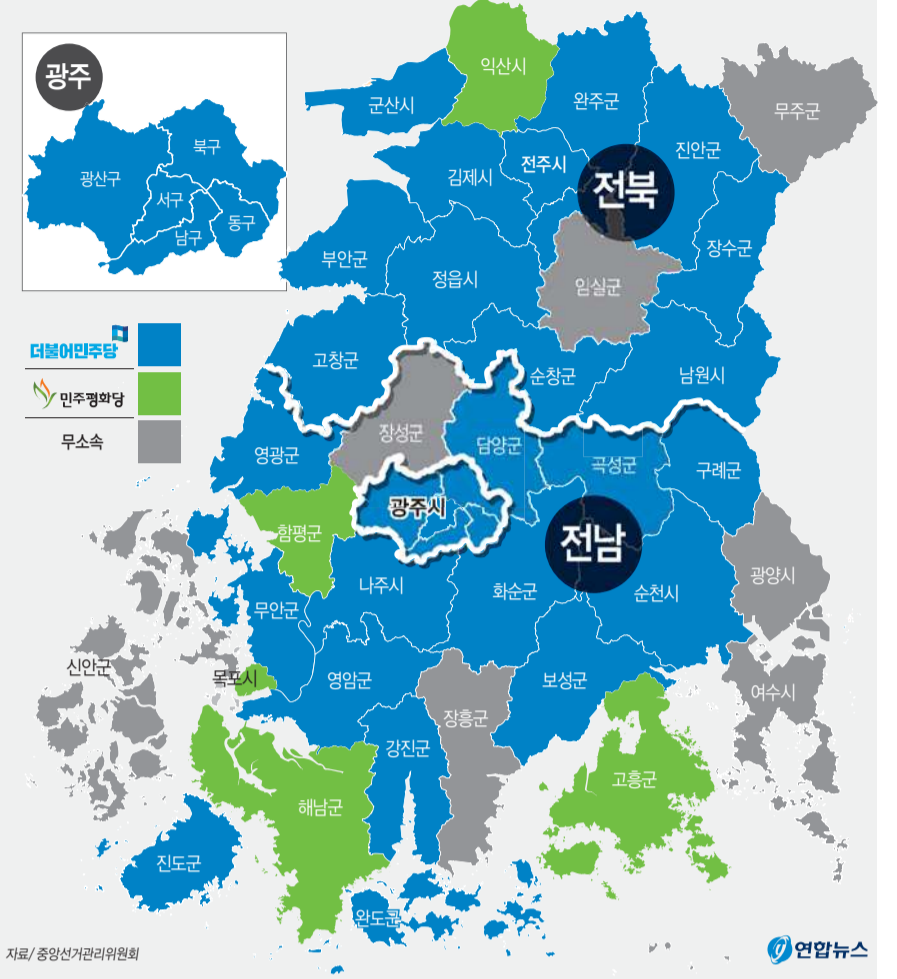
민주당은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적지 않게 고전한 셈이다.

민주당 텃밭이라는 전남에서 유권자들이 이른바 ‘묻지 마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다. 이는 지역 민심에 이반한 일부 지역의 공천 잡음, 막판 열세·경합지역에서 구사한 네거티브 전략의 부작용이라는 냉혹한 평가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지역 정치 관계자는 “광주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압도적인 표차로 5개 구청장을 휩쓴 것과 비교하면 전남 지방선거 결과는 다소 예상 밖”이라며 “민주당은 물론 망신을 피한 평화당, 후보 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은 바른미래당 등에도 시사점을 남긴 선거”라고 평가했다.

/광주·전남 무안=김남중·문병환·오인성·봉채환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전북·전남·광주 6.13 지방선거 결과



학생인권조례 제정·무상급식 도입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3연임' 성공

3선 연임에 성공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평교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직선 초대 교육감에 당선돼 광주교육의 혁신을 이끌어 왔다.

1950년 8월 충청북도 단양에서 태어난 그는 경찰 공무원인 아버지의 발령지를 따라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전남 영광, 목포, 신안 압해도 등을 거쳤고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광주 수창초등학교에 정착했다.

초등학교 때 시험지 대금을 내지 못했고, 광주서중 진학 후에도 제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려웠다.

광주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 매점에서 학용품과 간식을 파는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면서 학비를 면제 받았다.

광주교육대에 진학한 후 1970년 초등교사로 발령된 뒤부터 교직을 전직으로 생각했고 평교사로 근무했다.

1987년 교육민중화운동에 뛰어들면서 잔잔했던 삶에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장 당선자는 전교조 전남지부 사무국장을 맡았고 전교조 결성을 주도했다가 해직되는 아픔을 겪었다.

1994년 중학교 교사로 복직해 전교조



6·13 지방선거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장휘국 후보가 14일 오전 개표 결과 당선에 확실시되자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들과 환호하고 있다./뉴스1

광주시부장을 역임한 그는 2003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광주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 8년 동안 활동하며 현장 교육을 넘어 교육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키웠다.

장 당선자는 민선 1·2기 광주시교육감에 당선돼 촌지 없는 학교를 만들었고, 학생인권조례와 교원보호조례를 동시 제정했다. 5·18교육 전국화도 추진했으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김남중 기자

호남 첫 '4선' 기초단체장, 담양·목포서 탄생

최형식 담양군수·김종식 목포시장 유두석·이동진 당선자 '3선' 성공

6·13 지방선거 개표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4선(選) 기초단체장 2명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최형식 담양군수와 김종식 목포시장 당선자.

최 당선자는 이번에 당선되면서 연거푸 3선을 했으며 총 4번의 군수를 하게 됐다.

최 당선자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제39대 담양군수로 당선됐으나 2006년 재선에 실패한 뒤 2010년(41대)과 2014(42대)년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군수에 당선됐다.

전남도의원 출신인 그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장을 받으면서 4선의 유리한 고지에 섰었다.

최 당선자는 “지금까지 쌓아올린 눈부신 담양 발전의 금자탑은 군민의 소통과 화합 없이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편을 가르치지 않고 모든 이를 감싸는

김종식 목포시장



표용의 리더십으로 대화합과 대통합의 역사를 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3·4·5기 완도 군수를 지낸 김종식 후보도 목포시장 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기초단체장 4선이 됐다.

전국적으로 4선 단체장이 있지만, 김 후보처럼 자치단체를 바뀌가며 한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애초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평화민주당 박홍렬 후보에 뒤졌으나 개

최형식 담양군수



표에서 막판 근소한 차이로 뒤집기에 성공했다. 무소속 유두석 장성군수 당선자와 민주당 이동진 진도군수 당선자가 3선에 성공했다.

유 당선자는 재선 연임 도전이지만, 민선 4기에 당선된 뒤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에 하차한 바 있어 사실상 3선 군수가 됐다.

야권 및 여권 등 정당 텃밭에서 무소속으로 3선에 성공해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기록됐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보성군 내일 다향올림촌 '감자축제' 열린다

보성군은 오는 16일 회천면 득량만권역 활성화센터에서 다향올림촌 '감자축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최대 감자 주산지인 회천면에서 열리는 이번 감자축제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인 다향올림촌마을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희) 주최로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감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흥겨운 풍물놀이와 보성소리 공연을

시작으로 감자음식 만들기 및 먹기 등 맛 좋고 영양 좋은 여름철 웰빙 특산물인 감자를 활용한 즐거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예정이다.

또한, 미꾸라지 잡기, 석교방향제와 비누 만들기, 녹차 족욕과 녹차용품 체험, 찻자리 등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흥미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전남 보성=문병환 기자